

한전 본사 앞 클러스터용지 대안 없나

주변 4만여㎡ 등 분양 6년 지났지만 사업성 불투명해 착공조차 못해
2년째 고구마밭으로 전용...작물재배 등 목적 외 사용 제재 힘들어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정문 건너편의 4만여㎡ 산학연 클러스터부지가 올해도 고구마밭으로 변했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 주변 부지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다. 분양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착공조차 못했고, 급기야 지난해부터 2년째 고구마밭으로 전용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야 할 공간이 고구마밭으로 변했지만

전남도는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 깊다.

산학연 클러스터부지 절반은 6년째 착공 못해

7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등에 따르면 한전 정문 건너편의 4만여㎡ 산학연 클러스터부지가

올해도 고구마밭으로 변했다.

지난해는 한전 청사 서쪽에 자리한 테니스코트 옆 3만여㎡에도 고구마를 심었으나 올해는 정문 쪽만 고구마 밭이 조성됐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고구마밭으로 변한 것은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 분양은 2014년 이뤄졌다. 전남도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상업용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당 128만원의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84개 필지 41만4619.9㎡에 이르지만 착공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과 함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입주업체 모집을 장담할 수 없고,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업용지의 공실이 70%에 이를 정도로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도 불보듯 뻔해 사업자들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왔다.

분양 6년이 지난 현재 클러스터 부지 가격은 최대 10배가량 올랐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2년째 고구마 심고 있지만 제재방안 없어

사업자들은 2014년 7월 해당 용지를 분양받은 이후 착공을 못하고 계속 내다지로 방치해 왔다.

일부 토지는 금융권 대출금 상환지연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드넓은 용지를 방치할 수 없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부지를 임대했고,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들어와야 할 땅은 지난해부터 2년째 고구마밭으로 변했다.

올해 역시 한전 정문 건너편 4만여㎡의 부지는 녹색의 고구마밭으로 변한 상황이다.

문제는 산학연 클러스터부지가 목적 외 전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돼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주가 땅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해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제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등구, 장마철 대비 가로·보안등 안전점검 실시

광주 등구가 장마철을 대비해 7월 한 달간 호우대비 가로·보안등 및 공원등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서 관리중인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3332등, 보안등 4755등, 공원등 243등 총 8330등으로 전수조사 및 시설적합여부 파악을 위해 자체 정비팀을 편성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재로 증심천, 소태천 등 침수위험지역과 무등로, 지호로, 천변우로 등 경사로 가로등 전도위험 지역은 물론 대로변과 주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장마철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

광주 서구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추진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은 서구만의 독특한 시책 사업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을 배려한 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환경오염 문제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통한 친환경 식습관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남구, 아동·청소년 2500명 아토피·천식 유병조사

광주 남구는 아토피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 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병조사를 실시한다.

7월 남구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어린이집 17곳과 유치원 4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30개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유병조사가 진행된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보호자와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병조사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광주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3월과 4월의 평균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해당 소상공인 중 창업 6개월 이하인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으로 업체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6개월이 넘는 사업자 20개 업체에는 실·내외 간판, 소규모 인테리어, 안전·위생설비 등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국회서 행복 정책 사례 발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시민행복 실현'을 강조했다.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국민총행복 시대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정회원 15명과 준회원 25명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등 40여명은 '코로나 이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모색해야 할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e-모빌리티 공용차량 12대 분청·사업소에 보급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성장 확대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e-모빌리티 차량 12대를

구입해 분청과 사업소 등에 보급했다.

7일 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기운반차,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도는 초소형 전기차 7대와 농업용 전기운반차 3대, 전기 이륜차 2대 등 총 12대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지원연

구소 등에 배치했다.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전기운반차는 e-모빌리티 지역 생산업체인 ㈜캠시스와 ㈜대풍에서 구입했다.

박용일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도와 시·군이 운영중인 공용차량 중 e-모빌리티 특성과 용도에 맞는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블루 트랜스포트 성장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직장내 괴롭힘

정시간근로는

보안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지 범인이 엄벌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년정책지원회 한국노년정책연구소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3분위	4분위	5분위
보험료	1,110원	1,770원	2,110원	2,710원	5,310원
급여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엔 엄수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국민의 행복에서 새나오는 문화기업입니다.